

동네문화카페, 교육·경제 '일석이조'

군산시, 오늘부터 4월 28일까지 운영

전국 최고의 평생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한 군산시가 올해 동네문화카페 운영으로 교육 및 경제의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다.

시에 따르면 1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19년 제1기 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배달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네문화카페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를 평생학습의 장으로 활용했으며 올해는 경로당, 마을센터, 아파트관리실까지 강좌 장소를 확대하고 배달강좌도 함께 시행된다.

군산시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강사, 사업자, 수강생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동네문화카페·배달강좌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강좌를 담당하는 매니저를 선발했다.

이번 동네문화카페 사업으로 45개 강좌에 수강생 2,500여명, 배달강좌 사업에 114개 강좌에 828명이 참여해 소상공인 사업장 513개소, 매니저 72명, 강사 409명 등 일자리 창출, 골목상권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시는 올해부터는 중복된 수강참



군산시가 동네문화카페 운영으로 교육 및 경제의 효과를 노린다

여 제한, 강사 교육 강화, 정기적인 강좌 점검 등을 통해 원활한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동네문화카페 및 배달강좌 사업 시행으로 어려운 군산

경제에 큰 희망을 주고 있다"며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폐기물처리장 야적 불법폐기물 반출 시작

군산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 지난해 24일부터 반입돼 야적 중인 불법폐기물이 지난 15일부터 반출이 시작됐다.

불법 폐기물 총 75t 가운데 300t가량이 이달 반출되며 나머지 분량도 경기도에 한 사설처리업체 소각장으로 옮겨진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달 내 300여의 폐기물 반출이 확정됐으며 나머지 (450기량)는 검할 수사가 마무리되면 3월 안에 타지로 옮겨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군산시 소용동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시설에는 폐유, 페인트, 폐건축물 등 총 75t의 폐기물이 드럼통과 상자에 담긴 채 반입됐다.

이 폐기물은 충북 음성과 강원도 원주 등지로 불법으로 옮겨졌다. 환경당국에 적발돼 나흘간 주변 도로를 맴돌다가 군산에 있는 국내 유일의 지정폐기물 공공처리장으로 옮겨왔다.

이와 관련 군산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관영 국회의원은 설 명절을 앞



군산시 지정폐기물공공처리장에 지난해 24일부터 반입돼 야적 중인 불법폐기물이 지난 15일부터 반출이 시작됐다.

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소방서 정월대보름

화재예방 특별경계근무

군산소방서(서장 구창덕)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18일부터 20일까지 대형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소방, 의용소방대원 등 870명의 소방인력이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경계근무는 소방관서장의 지휘선상 근무와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체계 및 현장대응·상황관리 확립, 산불 발생 시 초기진화 총력 대응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소방서는 2인 1개조로 편성된 의용소방대와 화재취약시간대에 순찰을 실시해 화재위험 사각지대가 없이 안전한 정월대보름이 되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창덕 서장은 "최근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화재위험이 높으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농업환경개선 현장 행정 구슬땀

강임준 군산시장이 농업환경개선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지난 14일 강 시장은 직원들을 격려하고 농업환경개선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당부하기 위해 화현농협 농축산 순환자원화센터(이하 자원화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축분뇨 분리시설, 악취 방지시설 등 시설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경종농가의

견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시 농업관련부서는 농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친환경농업 발전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임준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화센터는 축산과 경종농업을 묶는 경축순환농업의 핵심 고리로서 친환경농업과 지역농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주춧돌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며

군산시,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 시행

군산시는 고용노동부 군산지청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2019년 고용위기지역종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공모로 확보한 23억8천만원의 국비로 활용해 취업 및 마음관리 역량 강화 프로그

램, 장단기·신산업 전문 직업훈련과정 등 5개 유형사업에 4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 시는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을 수행할 비영리법인(사)캡티브종합기술원과도 약정을 체결하고 빈틈없는 사업추진을 다짐했다. 박미심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장은

"군산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가 지역기업과 근로자, 실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임준 군산시장은 "2018년이 취업의 기반을 다지는 해였다면 2019년에는 취업관련 다양한 시책을 속도감 있게 운영해 취업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청년정책

군산시, 내달 8일까지 군산청년협의체 공개 모집

군산시는 청년이 직접 참여해 정책을 발굴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군산청년협의체' 청년위원을 오는 3월 8일까지 3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 모집되는 군산청년협의체는 청년활동의 공론화 장으로 지역청년의 문제를 행정과 함께 고민하고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정책소통창구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모집 대상은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중 청년정책에 관심이 많고 참여의지가 높은 청년이 20명 이내로 선발되며 위촉된 위원들은 2년 동안 모임 정례회, 워크숍 및 활동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청년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된다. 선발된 청년위원에게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청년정책 관련 다양한 교류 참여를 지원하며 연말 활동 우수자에 표창할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군산시 청년정책 추진의 핵심파트너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추진은 물론, 정책참여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청년협의체 모집신청 희망자는 군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해 지원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kej0234@korea.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원광대병원, 심평원 만성폐쇄성질환 평가 '1등급'

원광대학교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제4차 만성폐쇄성질환 적정성 평가에서 1등급 의료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원광대병원은 심평원 평가를 시행한 지난 2014년 이후 줄곧 1등급 의료기관에 선정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전국 6379곳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만성폐쇄성질환을 주진단 또는 제1부진단명으로 폐기능검

사시행률, 지속방문환자비율, 흡입기관지확장제 처방 비율 등을 평가했다.

심평원은 만성폐쇄성질환 환자의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고 중증으로 전환되는 것을 줄이고자 지난 2014년부터 만40세 이상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원광대병원은 370개 의료기관과 함께 1등급에 선정됐다. /뉴시스

익산농협, 당기순이익 45억2천만원 달성

익산농협이 역대 최대 당기순이익을 45억2000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익산농협은 지난 15일 대강당에서 제47기 정기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우수조합원과 사업별 우수고객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익산농협은 이 자리에서 예수금 7702억원, 대출금 6530억원, 경제사업 매출액 791억원, 대손충당금 30억원 추가 적립 등 2018년도 성과를 보고했다.

또 지난해 45억2000만원의 역대 최고 당기순이익 달성을 조합원 등에게 보고했다.

익산농협은 당기순이익을 활용해

출자배당 12억4000만원, 이용고배당 15억1000만원을 현금으로 배당할 예정이다.

또 사업준비금 11억원을 조합원 개인 지분으로 적립했으며 총 배당금도 역대 최대인 38억6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익산농협 관계자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수익의 다각화와 다양한 보조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실질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농협은 2017년도 당기순이익 40억9000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평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